야학·구제·포교… 근대 '공주포교당' 활발

공주 동불사, 13일 창건 100주년 학술대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충남 공주 동불사(주지 현중)의 전신인 마곡사 공주포교당이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야학·구제·강연회 등 근대계몽운동에 앞장서며 활발한 전법활동을 펼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주 동불사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는 10월 13일 동불사 경내에서 '공주 동불사 역사와 문화유산'을 주제로 창건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근대에 창건된 사찰인 동불사가 마곡사의 공주지역 거점 포교 사찰이었던 점과 이를 바탕으로 펼쳐진 다양한 신행운동과 포교활동 등이 조명돼 눈길을 끌었다.

이병욱 고려대 강사는 '1920년대 공주포교당의 포교 방향'을 통해 공주포교당의 포교관과 활동에 대해 살폈다.

이병욱 강사는 공주포교당이 〈조선불교유신론〉의 만해 스님과 〈조선불교혁신론〉의 이영재의 포교론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현실에서 구체화했음을 전제했다. 실제로 공주포교당은 1922년 처음 야학을 시작해 잠시 중단했다가 1926년 실달강습원(능인야학강습원)으로 재개했다.

〈불교〉 제30호(1926)에 따르면 공주포교당을 담당했던 현서봉 포교사가 돈이 없어 어려운 남녀아동을 모집해 가르쳤는데, 교사 모두 보수 없이 일할 정도로 열의가 대단했다고 기록됐다. 당시 학생수는 남자 70명, 여자 80명이었고, 이는 공주에서 처음 세워진 '노동야학강습소'의 학생 수 35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이에 대해 이병욱 강사는 "이는 만해 스님이 말하는 자선사업을 일으켜 포교하자는 주장, 구체적으로 이영재가 노동야학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주포교당은 청소년·청년·여성 등 계층법회 부흥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병욱 강사에 따르면 공주포교당에는 불교(부흥)청년회를 비롯해 불교소년회(능인불교소년회), 아리다라불교부인회가 구성돼 있었으며, 이들 단체들은 야학, 강연회, 구제활동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공주 동불사는 10월 13일 경내에서 창건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918년 마곡사 공주포교당 시작
만해 스님·이영재 포교론에 수용
소년회·부인회 등 계몽운동 전개
계층법회 성황… 지역 전법 주도
본사와의 갈등·일제 감시로 침체

이런 활동은 자연스럽게 공주포교당이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는 요인이 됐다. 농인강연회(農人講演會), 상번회(商繁會), 충남공주소년동맹 창립대회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가 공주포교당에서 개최됐다.

이병욱 강사는 "이는 공주포교당이 공주 지역 사람에게 신뢰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사찰이 지역문화와 민중생활에 기여한다면 자연히 해당 사찰은 지역에서 구심점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주포교당은 활발한 활동에도 포교사 인선 문제 등 내부 갈등과 일제의 감시로 인해 차차 동력을 잃어갔다.

김성순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연구원은 '공주 동불사의 근대 불교신앙결사'에서 능인불교소년회와 아리다라불교부인회의 활동 상황과 공주포교당의 한계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1925년 본산 마곡사 주지로 취임한 유인명이 포교당을 폐지하고 포교사 현서봉을 해임한다. 유인명은 도심 중심가에 있던 포교당을 한가한 초가와 바꾼 후 잉여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고, 이에 분개한 신자들은 일제히 반발해 폭력사태가 야기되기도 했다. 이후 공주포교당과 야학강습소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또한 일제의 감시도 공주포교당의 한 계로 작용했다. 마곡사는 500원을 출연해 공주포교당의 능인학원을 지역 유지들이 운영해줄 것을 1933년 공주 지역 신년 간친회에서 제안했으나 지역 경찰이 "분순한 단체에 학원을 인계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토의를 무산시켰다.

포교당 야학강습소에서 '조선어'를 가르치고, 빈민층 자녀 대상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던 점을 일제 경찰들은 '불순함'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게 김성순 연구원의 추론이다.

이에 김성순 연구원은 "강습소 폐쇄 등의 사건은 본사 독단 이면에 일제의 감시 및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까지 맞물려 갈등의 배경으로 작동한 사례"라면서 "공주포교당의 활동은 지역 포교당에서 신행과 포교, 사회봉사까지 지향했던 의미있는 시도였지만 결국 시대의 파고를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날의 한국불교의 자원들이 일제의 감시와 불합리한 제도의 압박을 견뎌냈던 근대불교의 산통의 축적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마곡사 공주포교당의 설립 의미(공주 원효사 주지 해월 스님) △공주 동불사 목조여래좌상 연구(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공주 동불사의 풍수지형(김규순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탄허 현토역해본 가치 조명한다

탄허강숙, 26일 학술세미나

탄허 스님의 교육 철학과 이를 반영한 현토역해본의 가치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대산 월정사 탄허강숙은 오는 10월 26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탄허 스님의 교육이념과 현토역해본의 가치와 의의'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의 '한암과 탄허의 승가교육이념과 실천양상' △이상하 한국고전번역원 교수의 '조선조 불서언해·사기(私記)와 탄허의 현토·역주의 비교 고찰'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의 '탄허 시문의 문학성' △조계종 교육아사리 문광 스님의 '통현화엄과 청량화엄에 대한 탄허의 관점' △이원석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의 '탄허의 학술과 회통론' △윤창화 민족사 대표의 '탄허 현토 역해본의 의의와 가치'가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장미란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김종진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신영주 성신여대 한문학과 교수, 석길암 동국대 교수, 김광식 동국대 특임 교수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고령사회 사찰 운영·복지 어떻게

천태종, 11월 10일 학술대회

한국 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고령사회에서의 사찰 운영과 신도 복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천태종(원장 문덕)은 오는 11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관문사 4층 옥불보전에서 '고령화 사회의 사찰 운영과 신도복지'를 주제로 2018년 천태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천태불교문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고령 사회에서 불교 공동체 운영과 신도 복지 등에 대한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주요 논문으로는 이혜숙 금강대 초빙교수가 '천태종 실버공동체 운영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노년기 불자의 건강과 수행 프로그램'을, 이원식 금강대 교수가 '천태종 노년불자의 사회봉사와 회향'을,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수가 '은퇴 신도의 종단 활동과 기여 방안 모색'을 발표한다. 신성민 기자

'詩僧' 경봉 스님 면모를 살피다



최두헌의 '경봉 정석의 한시 연구'

근대 한국불교의 산증인이자 통도사를 대표하는 선지식인 경봉 정석(鏡峰 靖錫, 1892~1982, 사진)은 선승(禪僧)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스님은 36세에 화엄산림 기간 중 오도하고 이후 통도사 극락암에 선원을 설립해 수많은 납자들을 제접하며 근대 선풍의 중흥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선승의 면모 뒤에는 한시로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했던 시승(詩僧)으로서의 모습도 존재했다.

최두헌 통도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의 연구저서 〈경봉 정석의 한시 연구-생애를 중심으로〉는 선승만이 아닌 시승으로서 경봉 스님의 면모를 조명한다.

시승으로서 경봉 스님을 조명할 수 있던 것은 스님이 자신의 삶을 〈일지(日誌)〉를 통해 남겼기 때문이다. 경봉 스님은 개인의 사소한 일상이나 자연에 느끼는 감성, 주변인과의 교류, 문학작품들을 〈일지〉를 통해 남겼다. 저자는 〈일지〉를 기본으로 해 경봉 스님의 생애와 작품의 특성과 의의들을 분석·연구했다.

연구서는 총 5장으로 구성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3장의 '경봉 생애의 시적 표현'이다. 저자는 경봉 스님의 생애를 오도 전과 오도기, 보림기로 나누고 시기마다 스님이 쓴 한시들을 분석해 그 양상을 살폈다.

최두현 실장은 "경봉 스님은 화엄산림법회 6번째 날인 12월 13일 새벽에 활연개오를 하여 이전까지 화엄의 테두리 안에서 경계 지어진 화엄의 틀을 깨고 조사선의 진정한 위용과 함께 선승으로서 이사무애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서 "그 이후 읊은 시들은 화엄에 기초하는 것이 아닌 선을 기초로 하여 선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을 담아낸다. '평상심시도'를 통한 도의 실천과 자아를 일상과 자연에 합일시키는 일들이 그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봉 스님 남긴 '日誌' 서
생애·사상·한시 등 분석
통도사 시승 계보도 조명

통도사 시승의 계보를 대략적으로 살핀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저자는 통도사의 시승 계맥을 총 149수의 시를 수록한 시문집을 내놓은 환성 지안(1664~1729)에서 시작된다고 봤다. 이후 면면히 이어져오던 시풍은 근대에 들어와 용악 혜견(1830~1908)이 주석하며 부활하기 시작했고, 성해 남거가 통도사 시풍을 부흥시켰다. 또한 성해의 제자인 구하·경봉·경하 대에 이르러 통도사의 시풍은 만개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경봉 스님은 평생 시를 통해 불교와 유교, 도교의 경계를 뛰어넘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인생사를 주제로 동시대 사람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담아냈다"면서 "신분에 구애받지 않았고 종교적 영역에도 국한되지 않았다. 이는 불교시사(佛教詩史)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 內 여성 역할 진단

불교여성硏 11월 3일 토론회

한국불교 내 여성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진단하는 학술토론회가 열린다.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여성연구소와 샤카디타 코리아는 11월 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불교의 새로운 지평-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여성'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학술토론회는 총 3부로 진행되며, 각각 한국 비구니 승가의 현황과 과제, 전망 등을 다룬다. 주요 발표로는 △일상에서 4성제 실천하기-붓다선원의 삶을 중심으로(진경 스님, 붓다선원장) △비구니와 군인의 만남-비구니 군승의 경험을 중심으로(정완 스님, 동국대 불교학술원 일반연구원) △한국불교 세계화-한마음선원의 활동을 중심으로(혜유 스님,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등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 후원계좌 : 국민은행(611225-92-12142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九龍의 소원...

❑ 사찰의 모든 장소 장식 가능, 분수 가능
❑ 소원당(소원지, 소원패등) 주작품
❑ 작품 소장사찰 : 여수 향일암, 강화보문사 등
❑ 크기 : 4,200(가로)×1,000(세로)×1,300(높이)mm
❑ 가격 : 상담 후 결정

기획불사상담문의
승원아트조형 010-9195-1044

네이버 : 승원아트조형

